

2012년 12월 17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자료문의 : 장금영 제품안전조사과장(02-509-7250), 이위로 연구관(7251), 장진호 주무관(7251)

## 기업, 리콜제품 회수율 전년대비 12%p 증가

-정부, 내년부터 리콜확인 전담반 신설·운영-

- 기술표준원(원장: 서광현)은 '12년 상반기에 리콜조치된 71개 제품(공산품 31, 전기제품 40)에 대하여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, 리콜제품의 회수율이 전년도에 비하여 약 12%p 향상 되었다고 밝혔다.
- '11.2월 제정된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소비자의 안전에 위해가 확인된 공산품에 대하여 리콜조치를 실시하고 있다. 기업은 리콜제품에 대해 수거·파기·교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.
  - '12년 상반기에 리콜조치된 어린이용 장신구, 책가방 등 공산품과 전기매트, 어댑터 등 전기제품을 합한 71개 제품은 총 35만개 판매되었으며 그중 43.7%가 회수된 것으로 조사되었다.
  - 이는 '11년 리콜제품 회수율 31.7%보다 12%p 향상되었고, 리콜제도 선진국인 호주의 39%보다 높은 회수율로서, 우리나라의 공산품에 대한 리콜제도가 신속하게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.
    - \* 호주는 '10년 리콜제품의 회수율 39%로 발표(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)
- 리콜제품중 공산품의 종류는 어린이용 장신구, 책가방, 이륜 자전거, 완구, 유모차, 보행기, 면봉등 이고, 전기용품은 전기장판, 전기매트, 전기방석, 형광등기구, 전기스탠드, 어댑터 등 이었다.
  - 품목별 리콜원인은 살펴보면, 어린이용품은 환경호르몬 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, 승용 완구는 제동장치 부재, 면봉은 세균검출 등 이었으며, 전기매트, 전기스탠드, 어댑터 등은 감전 위험, 온도상승으로 인한 화재위험 등으로 밝혀졌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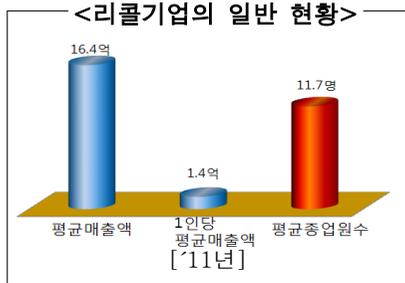
- 또한 기술표준원은 리콜기업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해, 리콜이행 확인 및 지도를 실시하였으며, 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 하였다.
  - 리콜기업은 대다수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행계획에 따라 홈페이지, 판매처 공문발송 등을 통해 리콜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.
  - 현장방문시 기업이 요청한 보다 현실적인 안전기준의 개정 및 공정한 시장경쟁환경을 위한 불법제품 단속 등 6건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는 적극 해결할 예정이다.
    - \* 우리나라 보행기 전도(넘어짐)기준을 국제기준과의 부합화 요청 등 6건
  - 제품 불량률 감소를 위해 품목별 결함내용을 조사·분석하여 발생원인과 해결해야할 과제 4건을 도출하였으며, 결함내용을 해결하기 위한 전문가의 기술지도, 정부 R&D를 추진할 계획이다.
    - \* 콘센트 부품의 납땀 제조공정을 친환경적 제조공정으로 개선 등 4과제
- 기술표준원은 이번 현장점검을 토대로 철저한 리콜 이행점검을 위하여 '13년부터 리콜이행 전담반을 신설·운영할 예정이다.
  - 이행전담반은 기술표준원과 한국제품안전협회 직원으로 구성 하게 된다.
  - 기업의 리콜조치 완료후 리콜업체 및 유통매장을 방문하여 리콜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리콜제품의 회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리콜 이행체계를 확립하고,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.

붙임 : 2012년 상반기 리콜제품 이행점검 참고자료 1부.

## 2012년 상반기 리콜제품 이행점검 참고자료

### □ 리콜기업의 일반현황 및 리콜조치의 매출 영향 정도

- 주로 평균 매출액 16억, 평균 종업원수 11명 정도의 소기업
- 리콜로 매출 영향을 받은 기업은 56.9%(43개 업체) 수준



### □ 리콜원인의 결합발생은 외부 및 내부 요인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

- 원자재·부품 외주의 외부요인(47개 제품), 제조공정 문제·원가절감 등 내부요인(30개 제품), 외부·내부 복합(13개 제품)

### □ 리콜이행체계 확립

